

담양 대덕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지방소멸 대응”

은퇴자·청년층 지역 정착 지원 단지내 500세대 기반시설 조성 돌봄·여가 등 생활서비스 지원

담양에 1000억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선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담양군은 4일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담양 대덕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

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한다.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담양군에서 대덕면 매산리 544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담양 대덕 매산지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26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민관협력사업으로 국비 97억원, 지방비 30억원, 민자 1140억원 등 총사업비 1267억원이 투입된다.

귀농 또는 귀촌하는 은퇴자를 주요 대상으로 500세대 규모 주거단지와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유학시설, 커뮤니티, 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단지 내 조성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에는 아동과 노인복지시설, 주민동아리실, 공동식당이 포함돼 있어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생활기반 시설을 전면 개방해 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광주와 20분 거리로 의료, 금융, 대형마트 등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추고 있어 향후 쉽고 여유가 필요한 장년층이 전과 정착을 유도하며 친환경 전원마을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남도, 국토교통부 평가 등 3차례 평가를 거쳤으며 최종 평가에서 이병노 군수가 직접 발표에 나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최종 선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병노 군수는 “대덕 매산 지역활력타운이 담양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투자사업 일자리 연계형 생활 인구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매력적인 명품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신소득 ‘지황’ 재배단지 육성 장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장성군은 신소득 약용작물 ‘지황’ 육성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경옥고 주원료인 지황은 항암, 불면증 개선, 스트레스저감 등에 효능이 있어 약재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소비되는 약용작물이다. 최근 수요 증가로 지황 재배면적 역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군은 지황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장성군이 재배할 지황의 품종은 ‘토강’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다. 수확량이 낮고 병충해에 약한 여타 품종과 달리,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하고 뿌리썩음병 등에도 강하다.

장성군은 안정적인 지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규모화, 단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8.4ha까지 재배면적 확대가 목표다. 지황 재배 걸림돌은 연작장해, 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장성=유봉현 기자

쌀 가공화 확대 활용교육 곡성군, 요리교실 등 7월까지

곡성군이 쌀 소비 확대와 가공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쌀 활용 교육에 나섰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우리 쌀의 무한한 변신’이라는 주제로 쌀 활용 교육개강식을 가졌다.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7월13일까지 7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쌀 소금, 쌀 요구르트, 라이스페이퍼만두, 쌀컵케이크 등 쌀을 활용한 요리와 디저트를 만들게 된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색적인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 소비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대체식품 속에서도 여전히 쌀은 주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연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접수 화순군, 취약계층 비용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유·LPG·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4만9800원, 2인 가구 20만5700원, 3인 가구 29만2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96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방식은 하절기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이나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인 10월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농협, 우체국, 국민은행, 광주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



곡성군, 가정 전기시설 수리 지원 활동

곡성군이 죽곡면 고치마을에서 ‘찾아가는 희망복지 이동서비스’를 실시했다. 매주 목요일 마을로 찾아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이동서비스는 전기 안전 점검 및 수리 전문 업체인 ㈜전경과 함께 했다.

곡성군 제공

나주시, 빗가람동 도원·존프라자 주차빌딩 무료개방

호수공원 등 주차난 해소 기대

나주시가 혁신도시 주차난 해결에 팔을 걷었다. 빗가람동 상가 밀집 지역 민간 주차타워 2곳을 무상 임차해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한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도원주차빌딩 1~4층’(빗가람동 345), ‘존프라자 주차빌딩 3층’(빗가람동 205-1) 2곳을 무상 임차해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임시공영주차장 2곳의 주차면 수는 총 819면으로 유료화 방침 전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민간주차타워 임차는 차량 통행, 주차가 많은 빗가람 호수공원,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추진됐다.

호수공원 인근의 경우 병원, 약국, 마트, 식당 등 상가 초밀집 지역으로 고질적인 불법 노상 주차로 인한 차량 접촉 사고, 보행자 안전이 평소 우려돼왔다.

신고 접수와 불시 점검을 통해 불법 주차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항의 민원 또한 만만치 않아 해결책이 시급했다.

나주시는 빗가람동 관내 100면 이상

주차시설 건물에 대한 무상임차 의향 조사를 실시, 민간주차타워 2곳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환경정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관리에도 힘을 기울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시공영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보행자 안전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 편의시설 제공과 불법 주차차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담양 담빛예술창고 ‘비움은 채움의 시작’ 전시회 연다

6일 개막... 8월28일까지

(재)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에서 오는 6일부터 8월27일까지 ‘비움은 채움의 시작’을 주제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외부기획자 초대전으로 진행된다. ‘비움’과 ‘채움’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담아 한국적 미니멀리즘을 뿌리로 하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담빛예술창고는 기존 자체 기획 일반 도에서 벗어나 중앙에서 활동하는 독립 기획자 초대전(‘생태·인류·담양’-최재

혁)에 이어 담양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획자에게도 전시기획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로작가 배동환, 한만영, 김종학 작가를 비롯해 권기자, 김진, 김이수, 표인부, 담양의 김재성, 김치준, 정광희 작가까지 서울, 경기, 전북, 경북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 10인을 초대했다.

오는 8일 개막 식전행사로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과 작가와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김재성 작가는 “비움이

란 예술가 스스로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는 선택적 의도이며 그러한 연속적 과정이 또 다른 정제된 채움의 산물을 얻으며, 이는 번뇌와 고통을 수반하는 수행의 일환”이라고 했다.

아티스트 토크와 전시 연계 오르간공연은 8일 오후 2시부터 개막식은 동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단체관람 예약 시 전문 해설사의 전시해설과 함께 더욱 풍성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다.

담빛예술창고는 매주 월요일 휴관이며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조진용 기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함평군 보건소

함평군 보건소가 안전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앞장 서고 있다.

4일 함평군 보건소에 따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음식문화를 정착하고 균형잡힌 식단을 실시하는 문화 운동이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정제, 위생모 등 7개 품목 물품을 지원했다.

모범업소,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 실천 업소를 대상으로 살균수저통과 일회용 앞치마, 위생마스크, 소형찬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고향사랑 기부하면 벌초 서비스” 함평군, 기부자 수요 반영



함평군이 기부자 수요를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 달례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품목을 확대했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달례품으로 벌초대행 서비스,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등 2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 벌초대행은 함평군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부시 생성된 포인트로 할인권을 받아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직접 벌초가 어려운 출향 향우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는 함평소방서에서 제안한 것으로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 교육이 결합된 서비스 품목이다.

기부자가 함평지역 주소지를 배송지로 선택하면 함평소방서 직원이 소화기 등 소방 용품을 설치하고 안전 교육도 제공한다.

함평=신재현 기자